

김택진 1조·방준혁 3조대...신흥 주식부자 등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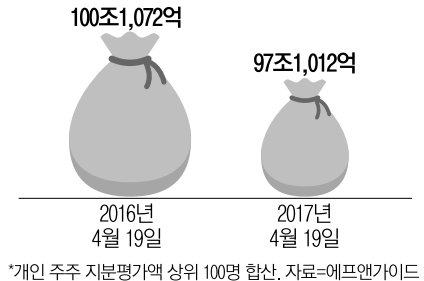
100대 주식부자 분석

사드 우려에 관련해 기업 오너들이 자본 가치가 급락한 사이 기업업체 주요 주주들이 신흥 주식부자로 떠오르고 있다. 연초 이후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엔씨소프트와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넷마블게임즈 상장 효과로 개인업체 대표들의 자본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 지분 11.98%를 보유한 김택진 대표는 최근 1년간 회사 주가가 23만 6500원에서 35만 9000원으로 급등하면서 지분평가액이 6215억원에서 9435억원으로 51.5% 늘어났다. 이에 지난해 30억이던 '주식부자' 순위도 올해 6대까지 상승했다. 엔씨소프트는 예상 시가총액이 10조~13조원에 달하는 넷마블게임즈 지분을 8.62%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넷마블게임즈 상장 후 엔씨소프트 주식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김 대표의 엔씨소프트 지분 가치가 추가로 상승해 4월 19일 현재 9435억원인 지분평가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의장은 다음달 회사 상장과 동시에 10위권 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 의장은 넷마블게임즈 지분 30.59%를 보유 중인데 넷마블게임즈 시가총액을 공모가 밴드 중간값(11조5000억원)으로 가정해도 지분 가치는 3조5000억원 이상이다. 이는 현재

1년 새 3조원 줄어든 오너 주식 가치 (단위=억원)



*개인 주주 지분평가액 상위 100명 합산. 자료=에프엔가이드

김, 엔씨 추가급등해 20위권
방, 넷마블 상장시 6위 예상
이건희 회장 15조 '부동의 1위'
'갯뚜기' 함영준 회장 2700억 ↑
사드여파 오린은 담 회장 2천억 ↓

5위인 최태원 SK그룹 회장(3조8395억 원) 다음이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경영권 방어에 위한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2015년 지분 스왑을 한 바 있다.

소셜 가치노 업체 더블유게임즈의 김가람 대표도 약진했다. 최근 1년위 규모로 미국 선두권 경쟁 업체 인씨·함병(M&A)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한 주 만에 주가가 40% (상한가 포함)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2579억원이던 지분평가액은 4181억원으로 62.2% 급증했다.

국내 주식부자 상위 10명 지분평가액 현황 (단위=억원)

주주	직책	주식 평가액	증감액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154,308	35,615
서정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78,380	-17,75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69,217	131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41,956	-6,365
최태원	SK그룹 회장	38,395	1,061
이재현	CJ그룹 회장	23,482	-3,261
홍라희	전성실리콘 리움 관광	22,149	8,199
정희선	현대차 부회장	22,901	-6,34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17,476	-2,181
이서현	삼성생명 특전부장 사장	17,476	-2,181
홍성조	BGF리테일 회장	16,959	637

*4월 19일 기준. 증감액은 1년 전 대비. 자료=에프엔가이드

이건희 삼성전자는 독주 체제를 견고히 했다. 3.53%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연초 대비 1년 새 3조7800억원의 지분평가차익이 발생했다. 삼성생명·삼성물산 등 다른 계열사들에서 2000억원 이상 평가손실이 난지 1년 전 11조 8692억원이던 지분평가액은 올해 15조 4308억원까지 늘었다. 삼성전자는 0.77%만 보유한 홍라희 전 삼성실리콘 리움 관광의 지분 가치는 지난해 1조 3950억원에서 2조2149억원까지 58.8% 늘어났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 가치는 큰 변동이 없었다. 삼성전사에서 6000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지만 지분 17.08%를 보유한 삼성물산의 주가 부진에 4400억원 지분평가손실이 났고 삼성

SDS 지분평가액도 1년 새 1000억원 이상 줄어 들었다.

업종 라이벌 주식부자들의 명암도 엇갈렸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지분평가액은 7403억원을 기록해 1년 전(4645억 원)보다 59.41% 증가했다. 증가액 규모로 보면 2759억원으로 100대 주식부자 중 다섯 번째로 컸다. 이는 오뚜기 창업자인 함태호 명예회장이 지난해 말 세상을 떠나자 주식을 상속받은 데다 상속세를 편입 없이 모두 납부하기로 선언해 일명 '갯뚜기'로 등극한 영향이 컸다. 또 오뚜기는 지난해 매출액 2조107억원, 영업이익 14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6.8%, 6.8% 증가했다. 반면 달집콘 오리온 회장의 지분평가액은 1년 전에 비해 2258억원 감소했고 이화정 부회장 지분 역시 2467억원 줄어 들었다. 매출의 56%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오리온은 사드로 인한 한중 경제협력 경쟁 악재가 다른 기업보다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개발에 있어 공매도 약제까지 덮쳤던 한미약품 임상시험 회장의 지분평가액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1조 5006억원이나 줄었다. 반면 경영권 강화에 지난해 지분을 꾸준히 사들인 동아쏘씨옵틱스의 강정석 부회장은 오뚜기 합 회장이 이어 지분평가액 증가 규모 상위 6위에 올랐다. 강 부회장의 지난 19일 기준 지분평가액은 3707억원으로 전년(1149억원) 대비 222.7% 증가했다. 이윤근·윤진호 기자

AIB “韓 기관과 공동투자 적극 추진”

A1면서 계속

특히 AIB가 고교도미사발방어제(아진·THAAD) 역으로 한중 갈등이 깊어지던 국면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번 인도 인프라 펀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동 투자가 성사되면 AIB와 국내 기관투자자가 손잡고 진행되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된다.

AIB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KIC 등은 이미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관투자자들”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주요 기관투자자들과 공동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공동 투자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앞다퉀 해외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AIB가 주도하는 이번 인도 인프라 펀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AIB 회원국 57개국 가운데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지분(3.81%)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6월 AIB 제2회 연차총회 이후 1년간 AIB 총회 및 대표 회의의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출범 이후 AIB는 굵직한 투자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만 타지키스탄 수도 도산베와 우즈베키스탄 국경을 잇는 도로개선 사업에 총 2750만 달러(약 312억원)를 대출한 것을 시작으로 방글라데시 다카 지역의 배전시스템 개선·확장 사업(1억6500만 달러)과 인도네시아 도심 빈민가 환경개선 사업(2억1650만 달러), 파키스탄 소프트-키네왈 구간을 잇는 64km 길이의 4차선 고속도로 사업(1억 달러) 등을 잇달아 진행했다.

AIB는 6월 16~18일 서울에서 제2차 중동관광단지 내 국제컨벤션센터(ICC)

지난해 AIB 투자 사례

사업	투자금액
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도로개선 사업	2,750만 달러
방글라데시 다카 지역 배전 개선·확장 사업	1억6,500만 달러
인도네시아 빈민가 환경개선 사업	2억1,650만 달러
파키스탄 '소프트-키네왈' 고속도로 건설사업	1억 달러
오만 동부 두류 항만개발 사업	2억8,000만 달러

사드 이슈에도 이례적 요청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인도 인프라펀드 참여할 듯

참여엔 연15% 수익률 기대

에서 제2회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전 세계 8개 회원국이 모여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대한 발전·투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AIB는 2020년까지 매년 150억 달러 이상의 인프라 시설 투자를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체투자전문 금융정보기업 프레이킨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인프라 시장 거래 규모는 전년(5580억 달러) 대비 15.6%으로 6450억 달러(약 730조원)에 달한다. 2009년(3300억 달러)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처럼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매일경제는 AIB 제2회 연차총회에 맞춰 주현림 삼성공회소의 공동으로 6월 17~18일 제주신라호텔에서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I 2017-Global Alternative Investment Insights 2017)를 개최한다. 국내외 기관투자자 500명이 참여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노후한 석탄발전소를 대신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수요가 거세게 일고 있는 미국과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중국 사이에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모색하는 'G2 인프라 시장 개막 대응 전략' 등의 세션을 다룰 예정이다.

넷마블·ING생명 이번주 공모 청약

'올 IPO 최대어' 관심 집중

올해 유가증권시장 기업공개(IPO) 최대어 두 곳이 이번주 공모 청약에 나선다. 넷마블게임즈는 25~26일 공모 청약에 나선다. 공모가는 15만 7000원으로 희망가 최상단으로 정했다.

공모 규모는 2조6617억원으로 작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록(2조2496억원)을 뛰어넘는 금액이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13조3026억원에 달해 시총 순위 21위를 차지하게 된다. 게임 대중인 엔씨소프트 시총(7조7957억원)의 1.7배 수준이다.

공모로 조달된 자금을 투자에 관련 기업 인수·합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작 게임 리니지2를 올해 안에 일본과 중국에 출시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339만 723주가 배정됐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에서 청약할 수 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정일은 다음달 12일이다.

ING생명보험은 27~28일 공모 청약 절차에 들어간다. ING생명은 네덜란드 ING그룹의 국내 자회사로 출발해 현재 생명보험 업계 5위 기업이다. 2013년부터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지배 주주다. 사모펀드 특성상 투자 회수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저위험·고수익 자산 관리로 재무건전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공모가는 24일 결정된다. 공모가 범위는 3만1500~4만원이다.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 1조3400억원이다. 이번 공모에서 신주 발행은 없고 기존 주식 중 670만 주가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됐다. 대주주의 나머지 지분은 1년간 보호예수되나 경영권 변동은 그전에도 가능하다.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KB증권에서 청약 신청을 받는다. 다음달 1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이다. 정우성 기자

'투자조합 인수기업' 먹튀 주의보

금융위 "3곳 중 1곳 불공정 혐의"

투자조합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바이오 같은 신산업 진출 정보로 주가를 띄운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사례가 다수 발견돼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 인수하거나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바뀐 후 신산업에 과장되게 홍보하는 기업은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2년간 투자조합이 경영권을 인수한 사례 42건 중 13건(28%)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작년에 투자조합이 경영권을 인수한 사례가 무려 33건으로 전년(9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는데, 이들을 중 국 중 관에서 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됐다는 얘기다. 유재천 자본시장조사단장은 "투자조합이 개인투자자가 관심 있는 바이오,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분야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보로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조합은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조합 구성원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무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기업 가치보다는 단기 수익을 목표로 시세 상승을 이끈 뒤 보유 주식을 매도에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행태를 보여 일반 투자자들은 종종 매매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수익형 부동산 투자전략

부동산 고수들만 듣는 강의 2017년 확실한 투자처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상품 오피스텔의 새로운 변화
5년 임대 완료된 안정 상품 공개

설명 - 투자 적합한 입지는 어디인가?
- 어떻게 15% 이상 임대수익율이 나오는가?
- 저평가된 지역이 어디인가?
-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 차익이 있는가?
- 실투자자를 소액으로 투자하라!!

상회 ※ 초빙강사 : 김혜경 교수
● 일시 : 4월 25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지하철 4, 7호선 이수역 2번출구 성산빌딩 B1층(국민은행 건물)
전화예약필수!!! 선착순 마감!!!
예약문의 : 02)534-6868

기업 구조조정 빌딩토지 매각

강남서초 신축5%가능 본생 임대수익용 빌딩
대지 약500㎡ 연면적 1,800㎡ 보등급 7.6억 월임대관리비 4,650만원 수익률 약5%가능,신사역도보3분,강남대로이면 코너,주차터뷰 별도
매매가 135억

강남송파 역출구앞 사옥, 수익 최고신축부지
대지 약2,000㎡ 보등급 4.5억 월임대료 4,000만원,대기업입차확정 출구앞 신축부지,지하철역 지하연결 개발가능,사옥,임대가능,자사승용차대
매매가 450억

강남 다용도 학원, 전시장, 근생용 신축부지
대 1,500㎡ 연면적 300㎡ 자가사용,지하3,지상층 신축가능 학원용도,전시 용도 적합한 강남 신축부지,명도가능,가격다소절충
매매가 450억

급급매 강남핵심대로, 대지3.3㎡당 1억3천 사옥빌딩
대지 약1,400㎡ 연면적 4,000㎡ 보등급 16억, 월임대관리비 1억3천만원 건축10년경과,대규모전시장 밀집지역,전시사용용빌딩,층층가능
매매가 550억

강남, 우량임차인 장기 임대 수익형 빌딩
대지 약900㎡ 연면적 3,000㎡ 보등급 30억 월임대료1.4억 자체관리 최고입지 코너건물, 전철임대,매년1000만명인산,현임대료저렴
매매가 580억

강남서초 사옥용, 호텔, 병원, 다용도 신축부지
대지 약1,200㎡ 연면적 13,950㎡ 지하5, 지상4층 가능,우량임차인 임대 강남권 역도보2분,최고입지터뷰 사옥, 학원, 호텔, 각종 근생신축가능
매매가 630억

자료제공은 반드시 당사방문과 신원확인, 능력제시 후 수령가능 문의처 : 02-557-1988, 010-3706-2326 trumpjb@naver.com 매각주권사 : (주)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 기명식 보통주 공개매수 공고

"2017년 4월 24일 ~ 2017년 5월 22일(29일)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34조 제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공개매수대상주식 :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 ("에이블씨엔씨" 또는 "대상회사") 기명식 보통주

■ 공개매수기간 : 2017년 4월 24일 ~ 2017년 5월 22일(29일)

■ 공개매수금액 : 2017년 5월 25일(목)

■ 공개매수 가격 : 1주당 29,500원

■ 공개매수 청약주식 : 최대 10,169,491주

■ 공개매수 청약장소 : 한국투자증권) 본점 및 지점

1. 공개매수의 방법

1) 에이블씨엔씨의 기명식 보통주(이하 "대상주식")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한국투자증권(이하 "증권사")에 지정된 청약기간에 청약신청을 하고, 공개매수대상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

2) 에이블씨엔씨는 기명식 보통주(이하 "대상주식")를 보유하는 투자자가, 공개매수대상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

3) 대상주식을 구매하는 투자자는, 한국투자증권(이하 "증권사")에 지정된 청약기간에 청약신청을 하고, 공개매수대상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

4) 대상주식을 구매하는 투자자는, 한국투자증권(이하 "증권사")에 지정된 청약기간에 청약신청을 하고, 공개매수대상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

5) 대상주식을 구매하는 투자자는, 한국투자증권(이하 "증권사")에 지정된 청약기간에 청약신청을 하고, 공개매수대상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

6) 대상주식을 구매하는 투자자는, 한국투자증권(이하 "증권사")에 지정된 청약기간에 청약신청을 하고, 공개매수대상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

본 공고는 「자본시장법」 제134조 제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이 공고는 「자본시장법」 제134조 제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이 공고는 「자본시장법」 제134조 제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지점안내

구분	지점명	주소	문의번호
본점	한국투자증권 본점	서울 중구 동대문로2길 12	02-3482-4000
서울	한국투자증권 서울 본점	서울 중구 동대문로2길 12	02-3482-4000
부산	한국투자증권 부산 본점	부산 중구 동대문로2길 12	051-253-1111
대구	한국투자증권 대구 본점	대구 중구 동대문로2길 12	053-253-1111
대전	한국투자증권 대전 본점	대전 중구 동대문로2길 12	042-253-1111
광주	한국투자증권 광주 본점	광주 중구 동대문로2길 12	031-253-1111
울산	한국투자증권 울산 본점	울산 중구 동대문로2길 12	052-253-1111
인천	한국투자증권 인천 본점	인천 중구 동대문로2길 12	032-253-1111
대구	한국투자증권 대구 본점	대구 중구 동대문로2길 12	053-253-1111
대전	한국투자증권 대전 본점	대전 중구 동대문로2길 12	042-253-1111
광주	한국투자증권 광주 본점	광주 중구 동대문로2길 12	031-253-1111
울산	한국투자증권 울산 본점	울산 중구 동대문로2길 12	052-253-1111
인천	한국투자증권 인천 본점	인천 중구 동대문로2길 12	032-253-1111
대구	한국투자증권 대구 본점	대구 중구 동대문로2길 12	053-253-1111
대전	한국투자증권 대전 본점	대전 중구 동대문로2길 12	042-253-1111
광주	한국투자증권 광주 본점	광주 중구 동대문로2길 12	031-253-1111
울산	한국투자증권 울산 본점	울산 중구 동대문로2길 12	052-253-1111
인천	한국투자증권 인천 본점	인천 중구 동대문로2길 12	032-253-1111
대구	한국투자증권 대구 본점	대구 중구 동대문로2길 12	053-253-1111
대전	한국투자증권 대전 본점	대전 중구 동대문로2길 12	042-253-1111
광주	한국투자증권 광주 본점	광주 중구 동대문로2길 12	031-253-1111
울산	한국투자증권 울산 본점	울산 중구 동대문로2길 12	052-253-1111
인천	한국투자증권 인천 본점	인천 중구 동대문로2길 12	032-253-1111